

비밀의 숲

이 극은 외로운 운명을 타고난 검사가, 의로운 경찰과 함께 온 힘을 다해
범인을 검거하는 추적의 기록이다.

「모두가 동기를 가진 범죄 용의자.
그 중에 진짜 살인마를 찾아라.」

극본 이수연

기획의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라고 외치는 한편에,
사람이 귀신보다 무섭다, 는 말이 진리인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다.

그래서일까, 사람들은 오래 전부터 무서운 이야기를 즐겨왔지만,
무서움을 주는 존재는 더 이상 귀신이나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다.
누구 네 부엌에 밥솥같이 몇 개인지 세던 시대는 끝장났고,
딱 하나뿐인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요즘,
우리 삶이 변했고 공포의 대상도 변했다.
‘인간 아닌 것’이 주던 공포가 ‘내’가 아닌 모든 ‘너’에게서 비롯되는 세상.
서글프고 아이러니하지만 평범한 이웃이 살인마로 돌변하고,
스트레스에 잠식된 뇌세포를 과대망상이 지배하는,
바야흐로 사회범죄극의 대활약 시대에,
한 남자의 죽음으로 이 이야기는 시작된다.

이어지는 제2, 제3의... 죽음.
그리고 범인을 쫓는 검사.

이 드라마는 연쇄살인사건에 휘말린 검사, 황시목의 이야기다.
처음엔 검찰 조직 내부의 비리에서 촉발된 것으로 보였던 사건은 하나 둘,
죽음이 늘어갈수록 범인의 의도도, 향방도 알 수 없는 미궁에 빠진다.

검사 시목은 감정을 잃어버리고 오직 이성으로만 세상을 보는 차가운 영혼으로,
법을 지키라고 만든 검찰이 법을 가장 많이 어기는 아이러니를 매일 목도한 인물.
이 아이러니를 끝내고자 했던 시목에게 첫 번째 주검은 그야말로 터닝포인트였다.
누군가 비리를 덮기 위해 살인을 했다면, 살인범을 잡는 게 곧 비리를 밝히는 일.

하지만 판을 뒤엎을 터닝포인트로 여겼던 첫 번째 죽음을 지나 두 번째, 세 번째
살인이 이어지자 시목의 심리에도 변화가 일어난다.
너무 많은 피가 흘러진다. 막아야한다. 잡아야한다.
문제는 희생자가 늘어날수록 주변 인물 모두가 살인동기를 가진 용의자로 차례차례,
부각된다는 것. 범인은 누구일까, 검찰 내부의 적일까?
그를 노린 외부 누군가의 복수일까?
아니면 피에 굶주린 미치광이의 소행?

혼란과 첩첩의 용의자를 뚫고 시목은 어떻게 범인을 잡을 것인가?

피의 강물 한가운데 선 수상한 검사

비리를 근절하고 중심을 바로잡는 중추기관이어야 하건만, 권력 다툼과 비리의 온상이 돼버린 오늘날 대한민국의 검찰. 이 혼탁한 오수(汚水) 속에 유일하게 독야청청한 8년차 검사 주인공 시목 앞에 한 구의 시체가 던져진다.

이것이 시작이다. 정체 모를 범인과의 생사를 건 추격전의 막이 오른다.

세상 그 어떤 생명체에도 공감이라곤 할 줄 모르는 시목은 얼어붙은 심장 대신 비상한 머리로 범인을 추적해가지만 희생자는 계속 늘어나고 용의자 역시 점점 불어난다. 또한 살인도 목적도 향방도 가늠할 수 없게 되는데.

비범한 머리로 태어났지만 그 대가였을까, 어린 나이에 뇌수술을 받아야 했던 시목. 성인이 된 지금은 감정을 배제한 체, 감정과다의 세상과 소리 없는 전쟁을 벌이는데, 이 ‘감정을 배제한 체’ 벌이는 ‘소리 없는 전쟁’이 연쇄살인사건과 충돌하면서 내는 폭발력을 영상으로 구현하는 것이 이 드라마의 지향점이다.

시목을 집요하게 자극하고 혹독하게 찢어대는 살인마는 과연 누구로 판명날 것인가. 처음부터 의심스럽던 그의 상관일까, 그를 아끼고 이해하는 듯 굴던 동료일까, 가엾은 희생자들은 연쇄살인마의 랜덤 초이스일까, 알고 보면 반드시 제거돼야 하는 대상이었을까. 그들을 죽여 범인이 얻는 것은 뭘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

모두가 범인 같다가, 모두가 무죄 같은 롤러코스터가 요동치는 가운데, 시목은 점차 희생자들에게 공통점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데.

.
. .
. .
. .

어릴 적,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던 시목에게 의사가 물었다.

양심 배려 온정이란 이름의 늑대와, 증오 이기심 질투의 늑대가 있다.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

시목이 답했다.

더 센 늑대가 이기지 않을까요?

의사가 깊이 시목을 보며 답했다.

내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긴단다.

이 드라마는 마음속에 차가운 늑대를 키우던 시목이 느리지만 단호한 의지로 정의를 향해 나아가는 이야기다.

대척점에 선 범인은 불행히도 이와 정확히 반대의 길을 걷는다.

원하는 바는 같지만 수단과 방법이 정반대인 두 사람, 시목과 범인.

이 역시 각자의 마음속에 어떤 늑대가 더 크게 파리를 틀고 있느냐에 의해 갈라지는 것이 아닐까.

둘 중 누구의 호소가 더 와닿는가 또한 두 사람의 대결을 지켜보는 우리 각자의 몫이 될 것이다.

주요 등장인물

1. 황 시목 (35세. 남. 서부지검 형사3부 검사)

"감정에 구애 없는 성문법은 내 삶의 가이드라인이다.
그래서 검찰이 되었고, 그래서 법을 여기는 검찰을 매일 본다."

IQ148의 수재. 학교 성적은 항상 전교 1등. 하지만 언제나 혼자다.
사람 자체를 곁에 두지 않아 친구도 애인도 없다. 부모님하고 조차 친밀감이 없다.
아주 어릴 때부터, 예를 들어 남이 먹으면서 소리를 낸다거나 혹은 무심결에 치고
지나가는 행동 같은 걸 참지 못했다. 남들은 거슬려하고 끝날 정도의 일에 화내는 걸
넘어 점점 공격적으로 반응하는 횡수가 잦아졌다.

우리 아이는 예민한 것뿐이다. 집중력이 너무 좋아서 그렇다,
애써 소리 높이던 시목 부모는 그러나 아들이 14살 때, 시끄럽게 했다는 이유로
반 아이를 다치게 하자 시목을 이비인후과에 데려간다.
하지만 결과는 이상無. 수십 군데 병원을 전전해도 항상 귀는 이상 없다는 진단 뿐.
결국 설마, 하며 찾아간 정신과에서 청천벽력 같은 진단이 내려진다.
어쩔 이리 똑똑하냐고 칭찬만 받던 시목 뇌에 선천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

외부세계를 경험하고 인식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하는 뇌섬엽이 지나치게 발달돼,
시끄러운 소리나 귀찮게 하는 행동, 심지어 지나가는 사람들의 스치는 잡담도 못
견뎌한다는 것. 이를 방치한 탓에 이젠 인간 자체에 불쾌감을 느끼고 거부하게
된 것도 문제지만, 이 불쾌감이 공격성으로, 심지어 폭력성으로 진화하는 중이었다.

불에 덴 것처럼 놀란 부모는 끝없는 고민 끝에 시목 머리에 칼을 대기로 결정했다.
그냥 뒀다간 언젠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저질러 감옥에서 생을 마감할지
모르기 때문. 하지만 전두엽에 가려 보이지도 않는 부위를 선뜻 수술하겠다고 나서는
의사는 없었고, 결국 미국까지 건너가 세 번의 시도 끝에 수술을 감행하는 동안,
시목의 집은 감정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파탄이 나버렸다.
평범치 않은 자식 뒷바라지에 지친 아버지는 떠났고, 홀로 시목을 떠맡은 어머니가
이 악물고 버틴 덕에 시목의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딱 하나만 빼고.

뇌섬엽은 스트레스나 소음, 통증을 인식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또한,
슬픔이나 기쁨, 불쾌함,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때 느끼는 기분 같은 것에도 모두
작용한다. 사랑에 빠졌거나 역겨움을 느낄 때도 활성화되는 뇌섬엽은 신뢰할 것인가,

죄책감을 느낄 것인가, 공감할 것인가, 부끄러워할 것인가 하는 인식을 결정짓는, 한 마디로 외부세계와의 ‘공감’을 결정짓는 통로인 것이다.

시목이 받은 수술은 바로 이 지나치게 발달한 뇌섬엽의 일부를 제거하는 것. 마침내 병원을 떠나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시목은, 공감의 통로가 막혀버린 후였다. 발달한 뇌섬엽 덕에 앞일을 예상하거나 거짓말, 진실을 구분하는 능력은 탁월했지만, 타인과의 공감을 잃어버리고 사랑도 기쁨도 슬픔도 너무나 희미해져버린, 기능만 남은 인간이 된 것이다.

그리고 현재. 35살의 성인이 된 시목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검사다. 감정을 전혀 못 느끼는 건 아니지만 남보다 훨씬 열고 흐린 탓에 무감동 무감정으로 일관하다보니 찢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인간이란 소릴 자주 듣고 인간관계도 메마르기 그지없다. 하지만 그 능력만은 누구나 인정하는 유능한 검사인데. 이대로 평탄할 것 같던 시목 인생을 요동치게 만드는 사건이 터진다.

그가 100% 범인으로 확신, 감옥에 보낸 살인범이 무죄를 주장하며 자살한 것도 모자라 진범이 아니란 게 뒤늦게 밝혀진 것. 시목이 증거를 조작했다는 탄원서를 뿌린 뒤 자살하는 바람에 후폭풍에 휘말린 시목은 사건의 배후를 밝히려 한다. 여기엔 그는 검사이고 살인범은 잡아야한다는 대의명제 외에 더 깊은 이유가 있다.

살해된 남자는 검경에 뇌물을 뿌려대던 이른바 스폰서 사업가. 그의 시체를 처음 봤을 때 시목은 터닝포인트다! 라고 생각했다.

시목이 검사가 된 것은 이것이야말로 나의 천직이다! 판단했기 때문이다. 예술가도 운동선수도, 아이들을 사랑으로 대해야하는 선생님도 될 수 없었던 그에게, 잃어버린 감정 대신 명문화된 법 같은, 삶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했다. 누군가에겐 사랑하는 연인, 피를 나눈 가족이 있겠지만 14살 이후 사랑도 할 수 없는 시목은 본능적으로 결핍을 채우려 했고, 따르고 지키기만 하면 되는 법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찾은 것이다. 그러니 이성을 앞세워 법을 수호하는 검찰직이야말로 그에게 최상이자 최적이었다. 하지만 몸소 겪은 검찰 집단이란...

경직된 기수 문화와 권력의 시녀 노릇, 무조건적 상명하달, 파벌 가르기, 술집 아가씨조차 검사들을 최악의 손님 1위로 뽑는다는 술자리 추태들, 거기에 상납, 뇌물, 뒷돈....

법을 가장 많이 어기는 게 검사들이 아닐까 싶을 정도의 현실을 목도한 시목은, 초보 검사 시절엔 원리원칙대로 간부, 동료들 막론하고 위법 실태를 고발했다.

하지만 고발된 이들은 어떡해든 빠져나가 살아남았고, 내부고발자인 시목에게 남은 건 한직으로의 좌천, 최악의 인사고과와 왕따의 기억 뿐.

시목은 점차 비리에 침묵해져갔다. 조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무 소용 없기 때문이다. 분노나 절망 때문이 아니었다. 그런 건 오래전 수술대에 놓고 왔다. 시스템을 완전히 뒤엎기 전엔 개혁이 불가능하다는 판단, 진단 때문이었다.

그런데 검찰간부들에게 전방위적 뇌물을 뿌려대고 협박하던 사업가가 죽은 것이다. 시목은 이 죽음의 판을 갈아엎을 터닝포인트가 될 것임을 직감했다. 죽음의 배후가 누구냐에 따라. 그래서 더욱 살인범 검거에 매달렸는데, 이것이 시목의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 전환점이 될 줄은 그땐 몰랐다.

수술을 받은 중학 2학년 14살 때 첫사랑이 있었지만 이후 누구를 좋아해본 적 없다. 감정이 있던 시절의 기억도 좋은 건 별로 없다. 소음을 못 참고 공격성을 드러냈던 그를, 그게 선천적 뇌의 이상 때문이란 걸 알 리 없는 아이들은 그를 싸이코라고 놀리고 따돌렸다. 그러면서 맨날 전교 1등이니 너무나 손쉽게 왕따의 표적이 됐다. 밖에서는 학교 폭력을 당한 기억, 집에서는 엄마 아빠가 특이한 아들자식 때문에 싸웠던 기억 밖에 없다. 그래서 아팠던 수술이지만, 시목은 수술을 후회하지 않는다. 공감을 못하고 사람들과 어울려 살지 못하는 게 슬픈 건지도 잘 못 느낀다. 하지만 수술의 후유증으로, 가끔 머리를 찌르는 이명(耳鳴) 증상이 그를 괴롭힌다. 이때 무슨 행동을 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white-out 증세도 있어 살인사건 때 알리바이를 증명하는데 곤란을 겪게 된다.

인간은 결점 투성이고, 더불어 사는 행복이란 불가능하다고 결론도 내렸지만, 그 결과 철저히 고립된 섬이 된 시목. 그도 외롭고, 춥다. 본인이 잘 모를 뿐. 사랑받지 못하는 것은 불운이지만, 사랑하지 못하는 건 불행인 것이다.

2. 한 여진 (30세. 용산경찰서 강력계 경위. 여)

"나는 나 홀로 당당할 것이며 어떤 고난도 정면 돌파 할 것을 나에게 약속한다."

100:1의 경쟁률을 뚫고 합격한 경찰대학 출신.

한 해 12명~16명 정도의 여경만을 선발하는 바늘구멍을 재수 끝에 통과했다.

졸업 후 절차대로 2년여의 파출소 근무를 거쳐 용산경찰서 교통계에서 다시 2년 정도 근무하다가 올해 강력계에 옮겨온 지 2개월 정도 된 중고신참이다.

어려서부터 꿈은 늘 경찰이었다. 정확히 말하면 9살 때부터.

꿈의 출발점이 딱 9살이 된 것은 그녀 개인에게는 매우 아픈 역사 때문이다.

선생님이었던 그녀의 아버지는 늦은 회식 후 귀가 중에 뺑소니를 당해 그녀가 7살 때 사망한다. 여진의 엄마는 얼굴도 예쁘고 동안이고 요즘엔 희귀 생명체가 돼버린 소위 현모양처 스타일이지만, 아니 그래서인지 의지할 남자 없인 못 사는 스타일이다. 하여 여진이 8살 때 바로 재혼을 해버렸는데.

엄마가 집에 없는 어느 날 화장실에서 의붓아버지가 급히 부르는 소리에 뛰어 들어갔다가 몹쓸 꼴을 본 9살 여진. 엄마한테 말하면 엄마가 또 과부가 돼서 아빠 죽었을 때처럼 매일 슬퍼할 거란 의붓아버지 말에 입도 뻥긋 못한 어린 여진은 친절한 계부를 이유 없이 싫어하는 못된 계집애가 되어 결국 속초 외할머니 손에서 자라게 된다.

또래 여자애들이 다이어트나 남자친구에 온 신경을 기울이는 사춘기 때부터 태권도처럼 제 몸 지킬 수 있는 운동에 매달린 여진은 머리가 굽어지면서 그때 그 사건은 절대 여진 잘못이 아니며 침묵해서도 안 되는 일이란 걸 깨닫는다. 서울 집으로 올라와 엄마에게 사실을 알리고 의붓아버지를 고소하는데. 엄마의 첫 반응은 좀 충격이었다. 나쁜 일이 생기면 모래 속에 머리를 처박는 타조처럼 아니다, 그럴 리 없다며 현실을 부정한 엄마.

그녀의 흔들림 없는 주장에 결국 엄마는 몇 년 후 이혼을 했고(지금은 다시 3번째 남편을 만났지만) 그 과정에서 여진은 중요한 인생 모토 2가지를 뼈에 새기게 된다. 첫째, 절대 남에게 의지 않고 내 두 발로 당당히 사는 여자가 되겠다는 결심과, 둘째, 앞으로 인생에 어떤 풍파가 닥쳐도 회피하지 않고 정면 돌파 하겠다는 의지다.

첫 번째 결심을 실현하기 위해, 또한 적성에도 딱 맞는 경찰이 되고자 엄청나게 노력해 경찰대학에 합격했다. 일반대학을 나와 순경 시험을 볼 수도 있었지만 그녀가 경대를 고집한 이유는 사실 돈 때문이다. 경대는 등록금 면제라는 어마어마한 메리트! 인간 말종 의붓아버지한테 등록금 대달라기는 죽기보다 싫었고 속초 할머니한테 손 내밀 수도 없었으므로.

교통계에서도 열심히 근무했지만 나쁜 놈 때려잡는 경찰이 되길 늘 열망했으므로 강력계를 지원한다. 여경이 드문 강력계 특성상 남자 형사들의 텃세를 각오하고 배우겠다는 자세로 대한 결과, 나이는 열 살 이상 훌쩍 많은데 그녀보다 직위는 낮은 베테랑 형사들이 드글드글한 강력반에서 이제 겨우 두 달이지만 실력도 인성도 인정받고 있다.

살인사건이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현장에 출동하면서 서부지검 형사부 검사 시목과 처음으로 조우한 뒤 사건의 중심에 있는 시목과 공조해나간다. 시목이 그나마 믿고 신뢰하는 수사 파트너 같은 존재가 되지만, 과거 싸이코로 찍혔던 시목이 진짜 살인범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그녀 마음에 조금씩 싹튼다.

시목이 자기 입으로 왜 지금 같은 감정 결핍, 불구의 상태가 됐는지 고백하는 유일한 사람. 하지만 시목과 합심해 살인범을 쫓던 중 평소 사이가 안 좋던 김경사에게 성추행을 당할 뻔하는 불상사가 터진다.

가뜩이나 연쇄살인범 못 잡아 서내 분위기도 안 좋은데, 당할 뻔 했지 진짜 당한 것도 아니니 내부적으로 조용히 처리하자는 남자 형사들의 암묵적 권유에 고민도 하지만 그녀는 또 다시 희생자가 되는 것을 과감히 거부하고 분연히 일어선다. 정식으로 신고하고 절차대로 처리하는 여진. 이 과정에서 자기 연민도 없고, 오버액션은 더더욱 없지만 세상은 아직 이런 일에 매우 보수적이고 미개하단 걸 깨닫는다.

여자가 그런 일 당한 게 뭐 자랑이냐는 손가락질부터, 과거 의붓아버지 일까지 까발려지면서 마치 그녀가 이런 일에 노이로제가 있어서 히스테리 부린다는 듯이 왜곡되고 사건 자체보다 후폭풍이 더 커져버리지만.

한 때 내가 정말 민폐를 끼치는 걸까 고민도 하지만 시목의 응원 속에 용기를 낸다.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올바른 대응책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전범이 되어주는 여인. 또한 제 속 시끄럽고 괴로운 것과는 별도로 일은 일! 연쇄살인마 검거에 온 힘을 다해 결국엔 그 정체를 밝혀내는 주역이 된다.

힘든 일 많이 겪고 세상의 어두운 면 추한 면을 많이 보지만 긍정적이고 따뜻한 심성의 소유자다. 더러운 세상에 절망하고 불평할 시간에 나부터 나아지고 좋은 사람이 되면 세상은 결국 좋은 사람으로 가득 찰 거란 신념이 있다. 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자기 안의 상처를 이겨낼 수 없는 아픔에서 출발한 신념이란 걸 시목은 알아차린다. 매우 다른 성격이지만 근원을 따지고 보면 비슷한 상처가 있는 두 사람은 친구이자 동지, 로맨스의 색깔을 뺀 소울메이트로 성장한다.

3. 이창준 차장검사 (40대 중반. 남)

"모든 不正의 출발은 아주 사소하다. 아직 사소할 때 첫발을 빼야한다.

마지막에서 빼려면 큰 대가가 따른다. 난 그 대가를 치를 것이다"

서부지검 차장 검사. 검사장에 이어 서부지검의 2인자이자 실세다.
접대와 뇌물을 통해 얹히고설킨 박사장에게서 모종의 협박을 받던 차,
공교롭게도 박사장이 피살당한다. 차장이 암적인 존재를 제거한 것인가,
하늘이 도운 우연일 뿐인가? 후배 검사 시목이 이 점을 파고들자 그를 사건에서
손 떼게 하려는 차장이 채찍과 당근을 동시에 휘두른다.
곧 검사장으로 진급을 앞둔 데다, 차장에겐 비리를 덮어야 할 절대적 이유가 있다.

비리의 실체는 다름 아닌 성접대. 현 법무부장관인 장인어른의 비호 아래
이 자리까지 수직상승한 그에게 성추문은 곧 사형선고다.
성접대를 제공한 박사장 협박에 차장은 공인으로도 사적으로도 벼랑 끝에 몰렸었는데
갑자기 박사장이 영원히 침묵당한 것. 이제 남은 건 접대를 제공한 여자뿐인데...
여자마저 칼에 찔린다. 동기는 완벽한 차장. 하지만 차장은 알리바이 또한 완벽하다.

서부지검의 인간관계를 장악, 편의에 따라 주무르는 인물.
후배 서검사를 오른팔로 부리는 동시에 제거하려 한다.
차장 비밀을 너무 속속들이 아는 서검사를 오래 두면 언젠가 화근이 될 것이기 때문.

검사로서 능력과 통찰력은 시목 못지않은 인물. 처세술은 압도적으로 우수.
인간성과는 별개로 시목의 능력을 높이 평가해주는 상관이었지만,
연쇄 사건 후부터는 시목과 첨예하게 대립하는 인물.
시목을 이용하기도 하고, 띄워주는 것 같으면서 위험에 빠뜨리기도 하는,
속을 알 수 없는 인물이다.

공직자는 너무 깨끗해도 너무 더러워도 안 된다는 회색빛의 사나이인데,
그런 그에게도 검사로서 한 일 중 아직까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
3년 전, 당시 법무부장관을 불명예 퇴임케 만든 사건이 그것이다.

당시 법무부장관을 끌어내리고 그 자리를 차지하려는 장인의 지시를 거스를 수 없어,
장관을 거금으로 유혹한 뒤 이를 폭로해버렸다.
많은 법관들로부터 존경받던 장관은 한방에 몰락했고, 장인이 바로 그 자리를 꿰찼다.
이때 자금줄로 썼던 이가 죽은 박사장이며, 그 대가로 박사장이 관급 공사를 한동안
모조리 수주했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존경한다면서도 결국은 음해한 것처럼, 결정적인 순간엔 철저히 본인 위주다.
검사장으로 진급하여 서부지검 1인자가 된 이후엔 주변 정리를 시작하는데,
앞으로의 행보에 걸림돌이 될 요소를 제거하려는 것인지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는
정리인지 매우 모호하다.

<서부지방검찰청 사람들>

4. 서동재 (40대 초반. 형사 3부 검사. 남)

현찰한 외모와 번듯한 직업을 가졌지만 제 배경에 자격지심이 많다.
전액장학금 받고 지방 법대 진학 후 악착같이 노력해서 사시에 합격했는데 특정 학교 출신들이 장악한 검찰청에서 살아남으려 발버둥 치다 그만 안 좋은 쪽으로 빠지게 된다. 학연도 지연도 없는 지라 어차피 어느 정도 이상의 진급을 기대할 수 없으니 현직에 있을 때 많이 벌어드자는 생각에 피의자들로부터 적극적으로 뒷돈을 챙긴다.

8년 전 시목이 햇병아리 수습이었을 때 동재가 수석검사였는데,
그때도 좋지 않았던 사이가 지금은 더 벌어졌다.
늘 무표정하고 야단을 쳐도 노여워도 않고 뻔히 쳐다보는 시목이 자길 지방대 출신이라고 무시하는 것 같았던 데다, 본인의 실수를 초보 수습이었던 시목에게 뒤집어 씌우려다 가차 없이 폭로당한 걸 아직도 잊지 않고 있다.

특정 대학 순혈주의에서 소외된 동재가 주목받기 시작한 건 뽕소니로 걸려든 박사장과 손잡은 후부터다. 말로는 건설회사 사장이지만 건설 용역을 부리던 박사장을 차장에게 제일 먼저 소개시켜줬고, 다른 검사들도 박사장이 뿌리는 돈맛을 보려고 동재 앞에 모여들었다. (시목에겐 이 돈맛도 먹히지 않아 동재에겐 미운 동시에 두려운 존재다) 이에 맞들인 동재는 박사장 외에도 수많은 물주를 직접 발굴해 뒷돈을 챙겨왔다. 그가 모는 차, 입는 옷, 어느 것 하나 제 주머니에서 나온 것 없다.

그랬음에도 박사장 사업이 어려워지자 가장 먼저 안면몰수 한다.
겉으로는 박사장과 차장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려 뛰어다니는 것 같지만 실은 박사장이 죽지 않고 계속 살았다면 동재야말로 가장 큰 타격을 입었을 인물.

차장에게 위협이 되는 인물이 연달아 공격당하자 차장을 범인이라고 생각한 동재는 차장의 비리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자기 자신이 다음 타겟이 될 거란 두려움에 휩싸인다. 이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동재는 엉뚱하게도 전혀 상관없는 인물을 범인으로 둔갑시킨다. 차장이 더 이상 뒷수습에 신경 쓰지 않게 만들어 사건을 종결 시키려 안달하는 것인데..

5. 영 은수 검사 (20대 중반. 형사 3부 검사. 여)

시목 방에 배치된 수습검사. 나름 명문가 출신으로 도도하고 자존심 세다.
하지만 아직은 수습인지라 도도한 것과는 별개로 배울 게 많은 것이 당연한데,
그걸 인정 못 하고 어떻게든 능력을 펼치고 싶어 하는 조급함이 엿보인다.

차장의 모함에 걸려들어 법무부장관에서 물러난 이가 바로 은수의 아버지다.
청렴결백하던 아버지는 하루아침에 범죄자가 되어 후배 검사들에게 끌려 다니며
조사받은 충격을 아직도 극복 못해 알코올 의존증이 되었다.

그런 사람의 딸이 철천지원수 같은 차장 밑에서 일하게 된 것인데.
정작 차장은 일체의 아는 척도 없어 은수가 뉘 딸인지 모르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
미안하거나 껄끄럽거나 심지어 불편해하는 기색조차 없다.
은수 역시 입 꼭 다물고 다 잊은 척 일관하고 있다.

하지만 어찌 심정도 그와 같으랴. 서부지검에 처음 발 들일 때부터 은수는 결심했다.
모함의 증거를 찾아내리라, 차장을 끌어내리리라, 내 아비한테 한 그대로 갚아주리라.
돈을 전달한 사람은 분명 8억을 은수 아버지가 받았다고 했지만,
아버지는 분명 그 돈을 돌려보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그 거액이 왔다 갔다 하는 어느 시점에선가 유실돼버린 것.
공방이 너무 길어지자 한 땀 은수도 아버지가 정말 돌려줬을까? 의심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젠 안다. 아버지가 그 돈을 챙겼다면 지난 3년 간 수입이 땡전 한 푼도
없어 어머니가 그 고생을 할 때 안 들키려고 입 짹 찢었을까 아버지가 아니다.

고결한 아버지를 잠깐이라도 의심한 게 더 죄송해서라도 내막을 밝혀야 하는데,
원한 맺힌 결심과 달리 햇병아리 은수로선 얼굴도 보기 힘든 차장한테서 증거는커녕
당시 정황 비슷한 것도 알아낼 방법이 없다.
기민하기 이를 데 없는 차장은 이미 당시 관련자료, 인물을 완벽히 정리했다.
남은 건 서로 구린 것 더러운 것 다 아는 박사장뿐.

배후가 누군 줄은 몰랐던 은수는 뇌물공여죄로 감옥에 간 남자가 사면되자마자
줄기차게 쫓아 결국 배후에 박무성이란 사람이 있음을 알아낸다.
마침내 찾아낸 박무성. 그런데 그 박무성이 사업에 실패하고 차장을 저주하고 있었다.

저 자를 내가 움아멜 수 있다면! 차장도 끝이다! 잡아 처넣을 수 있다!
은수는 온 몸이 떨렸다. 마침내 박사장을 찾아내 얼굴을 대면했는데..

6. 윤 과장(30대. 남. 사건과 소속)

사건과 중에서도 내사 담당. 3부장과 친하지만 3부장이 싫어하는 차장과의 뒤로는 긴밀히 연결돼있는, 라인이 불분명한 사람이다. 시목에게도 겉으론 친절하지만 그의 뒤를 캐기도 하고 시목 주변에 스파이를 심어놓기도 하는 등, 적인지 친구인지 구분키 어렵다.

7. 형사 3부장 (40대. 부장검사. 남)

차장 반대파. 차장이 법무부장관인 장인을 등에 업고 기수 문화를 파괴해가며 승승장구하는 것을 경계한다. 다른 부장들과 힘을 합쳐 차장을 밀어내고 싶지만 현재는 차장에게 반기를 드는 것은 곧 옷 벗는 것을 의미하므로 사태를 관망하는 중이다. 하지만 차장이 검사장이 된 뒤 공석이 된 차장 자리를 노리며 김칫국도 마신다. 3부장 역시 생전의 박사장에게서 술 깨나 얻어먹었다.

8. 수사계장 (50대 초반. 남. 서부지검 소속 공무원)

시목 검사실의 수사계장. 말 많고 탈 많은 검찰청에서 시목을 믿고 조력하는 인물. 하지만 수사계장도 원래는 차장 사람인지라 가끔 차장에게 불려가 시목에 대해 보고해야 하는 때가 온다.

9. 실무관(30대 중반. 여. 서부지검 소속 공무원)

시목의 검사실에서 일하는 여직원. 시목이 수습일 때도 함께 일했고 지방 근무를 마친 시목이 다시 서부지검에 왔을 때부터도 같은 방에서 쪽 같이 일했다. 수사계장보다도 시목과는 훨씬 오래된 사이. 계장과 함께 몇 안 되는, 검찰청 내 시목의 조력자다.

<용산 경찰서 사람들>

10. 김 수찬 경사 (용산서 강력계 형사. 40대 중반. 남)

막냇동생 뺄도 안 되는 ‘여자에’ 한 여진이 경찰대 나와서 상사랍시고 강력반에 온 것을 가장 싫어하는 형사. 아이와 아내를 필리핀에 보낸 기러기 아빠인지라 늘 돈이 궁하다. 강력반 업무와 상관없이 오락실 단속 등으로 뒷돈을 챙기다 새까만 후배 박순경에게 들키는데, 박순경이 이를 여진에게 상의한 것을 알고 말다툼을 벌이다 여진을 성추행 하기에 이른다.

11. 용산경찰서 서장 김 우균 (40대 중반. 남)

서부지검 차장검사의 고향 친구. 차장으로부터 소개받은 박사장한테서 역시 술 많이 얻어먹은 전력이 있지만 많은 이들이 그렇듯 스스로를 비리 경찰로 여기지 않는다. 그저 명절 때 선물 좀 받을 수 있는 거고, 편의 좀 봐준다고 누가 죽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게 다 사람 사는 방편이고, 받아서 혼자만 챙긴 것도 아니고 박봉에 시달리는 부하들한테도 돌렸으니 자못 뿌듯하다.

즉 이미 만연된 스폰 관행에 철저히 젖어 기준마저도 아예 없어진 상태.

하지만 결정적인 실수가 시목의 눈에 걸려들면서 이로 인해 큰 곤혹을 치를 위기에 처하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최악의 수를 선택한다.

12. 장형사(30대 후반. 남. 용산서 강력반 경찰)

용산서 강력반에서 여진과 가장 죽이 잘 맞는 베테랑. 실제 업무 능력도 뛰어나다. 여진의 김경사를 성추행으로 고발했을 때 끝까지 지지해주는 유일한 인물.

<범죄 희생자와 그 가족들>

13. 박무성 사장 (50대 초반. 남. 건설사 운영)

연쇄살인사건의 첫 번째 피해자. 권력에 기대 편법으로 키운 사업이나마 제대로 유지 못하고 쫓딱 망해 빚더미에 오른 뒤 제 집 마루에서 살해당한다.

돈은 물론 어떤 미인을 붙여줘도 거절하고 조금의 편의도 봐주는 법 없는 시목이 아니꼽기도 하고 성정체성도 의심스러워 동성연애자라는 소문을 검찰청에 퍼뜨린 바 있다. 현직검사가 동성애자라는 건 치명타가 될 테니 엇 먹어라 하는 마음이 컸다.

14. 강진섭 (20대. 남. 전과자. 지역케이블 tv 기사)

케이블 고장 신고를 받고 박사장 집을 방문했다가 죽어있는 박사장을 가장 먼저 발견한다. 하지만 신고 대신 그 옆에 떨어진 귀금속에 욕심이 나 현장에서 이를 훔치는데 곧바로 쫓아온 시목에게 체포되어 일사천리, 감옥에 갇힌다.

지난 수감생활에서도 자살 시도를 한 바 있는 진섭은, 죽이지 않고 흠치기만 했다는 호소에 귀 기울이지 않은 시목을 고발하는 글을 남기고 감옥에서 목숨을 끈다. 무기징역 선고에 모든 희망을 잃고 너무나 억울해서 자살한 줄로만 알았던 그의 죽음은 시간이 흐른 뒤 다른 국면이 드러난다.

15. 권민아 (20세. 여. 룸살롱 종업원)

상당한 글래머 미인. 본명 김 가영. 스폰서 계약을 맺은 박사장 요청이 있으면 로비가 필요한 이들을 만나 성접대한다.

박사장이 죽은 다음엔 독자적으로 일하다 연쇄살인사건의 피해자가 된다. 천신만고 목숨을 구한 뒤 집으로 돌아가 새 삶을 살려고 노력한다.

16. 박경완 (21세. 남. 박무성 사장의 아들. 휴학생. 군인)

아버지 박사장과는 달리 소심한 모범생 스타일. 집이 부자일 때 골프특기생으로 대학에 갔는데 집안이 갑자기 망하는 바람에 휴학하고 바로 입대했다. 군복무 중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접하고 할머니가 홀로 떠돌자 생계 곤란 사유로 조기 제대한다.

아버지 장례식에서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는 경완을 한경장이 유심히 봤었는데, 장례를 치르자마자 상속권 포기해서 빚을 청산하고 할머니 집 문제도 척척 해결, 실용적이긴 하나 그 행보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나 애정은 찾아볼 수 없다.

17. 무성모 (70대. 여. 박무성 사장의 어머니)

사업 말아먹고 빚쟁이 피해 어머니 집으로 피신 온 아들 무성이 혹여 몸 축날까, 극진히 보살핀다. 아들 죽은 집에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어 찜질방으로, 길거리로 떠돌다 하나뿐인 손자 경완이 조기 제대해 돌아오자 어떻게든 손자랑 살아보려고 애쓰는데, 경완이 아버지를 죽인 혐의를 받고 용의선상에 오르자 또 다시 가슴이 무너져 내린다. 손자를 의심하진 않지만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아들과 손자가 서로 으르렁대고 원수처럼 지내는 게 너무나 가슴 아팠던 그녀로선 견디기 힘든 시간이다.

하지만 시목의 눈에 그녀는, 노년 망쳐놓은 아들을 죽일 동기 충만한 용의자 중 하나

일 뿐.

이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도 아들 죽인 혐의 뒤집어쓰고 감옥에서 자살한 강진섭의 아기를 거두어 키운다. 무성母의 이러한 행보는 인간에게 어떤 기대도 않는 시목마저 다시 돌아보게 만드는 사랑의 원천이 된다.

<그 외 인물들>

18. 김정본 (36세. 남. 전직 변호사 사무소 사무장)

시목의 중학교 동창. 중간에 전학을 왔고, 공부로 날리는 시목에 비해 정본은 별로 뛰어난 학생도 아니었던 데다, 그나마 시목이 갑자기 전학 가는 바람에 말 몇 마디 못 나눠봤다. 그때 그 일이 아니었다면 계속 모르는 사이로 지냈을 것이다. 첫째는 시목이 싸이코란 소문이 전교에 짹 퍼지게 된 게 시목이 정본을 다치게 한 일에서 비롯된 것이며, 둘째론 그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전부 시목을 왕따 시킬 때 유일하게 말 걸어주고 관심 기울여준 아이가 정본이었다.

강진섭 변호를 맡은 인연으로 20년 만에 중학교 동창 시목과 재회하게 되지만 그 후로 우연치곤 너무 자주 마주치게 되는 상황에 놓인다.

19. 법무부장관 이윤범 (60대. 남)

현 법무부장관. 지금까지 약 3년 간 자리를 지킨 역대 최장수 장관이다. 3년 전 당시 법무부장관에게 뇌물죄를 뒤집어씌워 불명예 퇴진시키고 이 자리를 차지했다. 현재는 보수와 진보 사이를 줄타기하며 또 다른 변신을 꾀하고 있다. 서부지검 차장 검사의 장인.

19. 차장妻 (30대 후반. 여)

현 법무부장관의 딸이자 서부지검 차장검사의 아내.

19. 영일재 (60대. 남)

전 법무부장관이며 영은수 검사의 아버지.

공직자로서 드물게 청렴결백하지만 안타깝게도 무기력하다.

오랫동안 법대 교수를 지냈고 연수원에서도 많은 후배를 길러냈지만 강력한 카리스마가 부족한 관계로 확실한 자기 세력을 만들지 못했다. 장관에 뽑힌 것도 온건한 중도 인사가 필요했던 당시 분위기 때문이었을 뿐, 별 업적도 남기지 못하고 모함에 빠져 물러난다. 그의 청렴결백함은 인정하는 사람들도 영일재 장관은 실상은 무력한 인사였다고 평가한다. 서부지검 차장 검사도 그 같은 평가를 내리는 사람 중 하나.

차장 세력에 의해 무기력하게 패배하고 은둔했던 그가 충격적인 사건을 겪으면서 과거의 일에 칼을 빼게 된다.

이외, 용산서 사람들, 검찰청 사람들, 피해자 가족 등.

그리고

.
.
.

.. 未知의 살인마.